

돈황 고초(古鈔)에서 다자이후 목간까지

—당대 과거 유서가 일본 고대 대책문 정리연구에서 가지는 학술적 가치

손사초(孫士超)

초록:

당대 과거 유서 《토원책부(兔園策府)》와 《위징시무책(魏徵時務策)》은 일본 고대 대책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황본 《토원책부》와 다자이후 출토 《위징시무책》을 기록한 목간 등 자료를 헤이안 초기 《경국집(經國集)》에 수록된 대책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두 유서가 문본 교감, 문체 모방, 사상 영향 등의 측면에서 일본 나라·헤이안 시대 대책문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음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 당대 과거 유서는 일본 고대 사자(士子)들이 대책문을 작성하는 범본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율령제하 과거제도 운영과 한문학 수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한중 고대 제도 상호참조와 문화 융합의 심오함을 부각시킨다.

핵심어: 《토원책부》; 《위징시무책》; 일본 대책문; 돈황 고초; 다자이후 목간

서론

당대 과거제도의 확립은 "시책(試策)" 단계에 봉사하는 유서 편찬을 촉진했으며, 《토원책부》와 《위징시무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당대 과거문화의 핵심 매체일 뿐만 아니라, 중원 제도문명이 동쪽 일본으로 전파되는 핵심 매개체이기도 하다. 돈황 석실 보장의 발견으로 《토원책부》 잔권이 다시 세상에 나왔으며, 그 문본과 성서(成書) 연구는 이미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다자이후 목간의 출토(1973년)

는 《위징시무책》이 늦어도 나라시대(710-794) 중후기에는 이미 일본에 전래되어 "서생(書生)" 계층이 학습·사용했음을 확실히 증명했으며, 그 판본, 동전 시간 및 율령 주석서 《고기(古記)》에서 제도 설명으로 인용된 상황도 초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현재 두 유서가 일본 고대 대책문 정리연구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의 관련성과 협동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 학자가 《토원책부》가 일본 대책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개별 사례를 열거했지만, 이것이 종합적 범본으로서 일본 사자들이 대책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용·모방된 깊이와 넓이——특히 의제 범례를 제공하고, 작성 템플릿 및 교감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아직 심화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위징시무책》의 내용이 현존 일본 대책문의 조직 속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투했는지, 그 권위적인 대책문 형식과 실용 문풍이 일본 사자 창작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토원책부》와 일본 과거문화 수용에서 상호보완 및 협동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문본 정독에 기반한 체계적 조명이 부족하다.

사실 이 두 유서는 일본 율령제하에서 당제를 모방하여 과거(공거)를 수립할 때, 응시에 참가하는 사자들이 "책문(策問)"에 응대할 때 의존하는 핵심 지식자원과 작성 범식(範式)의 원천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토원책부》는 광범위한 의제와 구조 템플릿을 제공했고, 《위징시무책》은 명신이 작성한 "시무"에 집중한 권위적 범본으로 유명하다. 이 두 가지는 일본 상대(上代) 대책문 연구에서 이중의 핵심 가치를 가진다. 첫째, 돈황본 《토원책부》는 일본 전세(傳世) 대책문을 교정하는 데 중토(中土) 고초본의 권위적 근거를 제공했다. 둘째, 두 유서의 어구, 구식(句式), 구조 및 그것이 체현하는 부염(浮艷) 비판, 문리 견비 주장의 실용 문풍이 일본 대책문에 광범위하게 모방·화용되어, 그 창작 풍모와 문학관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돈황 문헌, 다자이후 출토 목간, 일본 전세 한적의 삼중 증거 사슬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토원책부》와 《위징시무책》이 어떻게 문본 교감, 작성 범식, 의제 사상 및 과거 실천 등 다층면에서 협동하여 일본 고대 대책문을 형성했는지를 밝혀낸다. 동시에 두 유서의 동전, 응용에 대한 실증을 통해, 한적이 제도·지식·문학의 매체로서 "서적의 길(書籍之路)"에서 수행한 핵심 역할을 해석하며, 이는 역외 한적 연구 및

한일 제도문화 교류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견고한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본 고대 대책문 문헌의 정밀한 정리에 신뢰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한다.

1. 돈황 고초 《토원책부》와 일본 고대의 대책문 연구

(1) 《토원책부》의 성서 및 일본으로의 동전

돈황 고초 《토원책부》의 성서 시간에 대해, 학계는 정관 7년부터 상원 연간(633-676) 등 여러 추측을 제시했는데, 혹은 장왕(蔣王) 이운(李惲)의 생애에 근거하거나, 혹은 사본의 피휘(避諱) 특징에 의거했으나, 모두 의문이 있었다. 《두사선묘지(杜嗣先墓誌)》의 발견이 핵심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묘지》는 두사선이 장왕 료좌(僚佐)를 임명받은 것이 현경 3년부터 인덕 원년(658-664)이었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소호경사겸속문(少好經史兼屬文)"의 학술 전성기와 정확히 일치하여, 《곤학기문(困學紀聞)》의 "장왕 윤이 료좌 두사선으로 하여금 응과목책(應科目策)을 모방하게 했다"는 설을 뒷받침하며, 《토원책부》가 658-664년 사이에 성서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으니, 당 고종 집정 초기 과거문화가 융성했던 시기의 산물이다. 이 책은 문세(問世)하자마자 사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동전의 기초를 다졌다.

《토원책부》의 일본 동전 시간과 경로도 실증되었다. 후지와라노 스케요(藤原佐世)의 《일본국전재서목록(日本國見在書目錄)》(876년 편)에 이 책이 가장 먼저 저록(著錄)되어, 그 일본 전입이 875년 냉연원(冷然院) 화재보다 빨라야 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사선묘지》에 기재된 장안 2년(702년) 그가 일본 제7차 견당사 접대에 참여한 사실은 더욱 정확한 시공 좌표를 제공한다. 마침 일본 《대보율령(大寶律令)》(701년) 발행 초기였으며, 그 시기 견당사의 핵심 사명이 바로 당제를 고찰하는 것이었고, 새로 수립된 과거제도는 당연히 관심의 중심이었을 것이다. 두사선이 이 책의 찬자로서, 사단에 이 책을 직접 증정했거나, 사단이 당에서 이 책의 사본을 구입하여 704년 귀국 시 배에 실어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합리적이다. 이로써 《토원책부》가 늦어도 704년에는 이미 일본에 전입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신속히 전파되어 율령 교육체계에 융합되었다. 《일본국전재서목록》이 이를 《문심조룡(文心雕龍)》《문선(文選)》과 함께 "총집(總集)"류에 나열한 것은

관방의 중시 정도를 드러낸다. 《양로령(養老令)》이 진사과에서 《문선》 시험을 규정한 배경하에, 《토원책부》는 그 책문 범식과 치국 의제(예: "정동이(征東夷)"가 《경국집》의 "치어신라(治御新羅)"에 대응)의 높은 계합으로 인해, 관사(官私) 학교에서 과거 교재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종합하면, 《토원책부》는 당대 과거 유서의 전범으로서, 고종 현경부터 인덕 연간에 성서되어, 제7차 견당사와 함께 8세기 초 일본에 동전되어, 율령시대 과거 시책의 문체 규범과 지식체계 형성에 깊이 참여했으며, 한중 서적의 길에서 중요한 정신적 매체가 되었다.

(2) 돈황본 《토원책부》가 일본 고대 대책문 정리연구에서 가지는 가치

(1) 문본 교감의 권위적 근거

돈황본 《토원책부》 잔권 S.614(도1), S.1086(도2) 등은 비록 서문 및 권1에 수록된 5편의 책문만 남아 있지만, 일본 《경국집》에 수록된 나라·헤이안 시대 대책문의 교감 정리에 핵심적인 참조를 제공했다. 구체적인 전형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도1 사(斯)614 《토원책부·권제1병서(卷第一並序)》(부분)]

[도2 사1086 《토원책부·권제1병서》(부분)]

"우휘(禹麾)" 교정. 《경국집》 권20 진충마려(神蟲麻呂) 대책문에 "설우휘이대사, 좌요구이구현(設禹麾而待士, 坐堯衢以求賢)"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휘"자가 일본 통행본(《군서류종(群書類從)》 등)에서는 대부분 "우(虞)"자로 오기(誤記)되어 있다. 코지마 노리유키(小島憲之)는 "우우(禹虞)"(하우(夏禹)·우순(虞舜)을 가리킴)가 "설(設)"자와 의미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신궁문고본(神宮文庫本)을 따라 "휘(麾)"(군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출전을 더 추적하지는 않았다. 돈황본 《토원책부·서(序)》를 고찰한 결과, 정문에 "집우휘이진선, 좌요구이방현(執禹麾而進善, 坐堯衢以訪賢)"이라는 표현이 있어, "휘"자가 정확함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진충마려 문이 실제로 이 구식을 화용했음("방현"을 "구현"으로 바꾸기만 함)을 드러낸다.

"추민(秋旻)" 변정. 같은 편 진충마려 문에 "환언재안, 약추민지피밀운(煥焉在眼, 若秋旻之披密雲)"이 있다. 통행본에서 "민"이 "호(昊)"로 오기되어 있다. 《이아·석천(爾雅·釋天)》 "추위민천(秋為旻天)"을 살펴보면, 《초학기(初學記)》는 "호천(昊天)"이 하늘 공(夏空)을 가리킨다고 기재하므로, "추민"은 가을 하늘을 특별히 가리킨다. 코지마 노리 유키는 일찍이 중웅왕(仲雄王) 시에 근거하여 "추민"이 일본인의 "조어(造語)"라고 단언했으나, 이 설은 잘못이다——도연명(陶淵明) 《자제문(自祭文)》에 이미 "유유고민(悠悠高旻)"의 예가 있다. 돈항본 《토원책부·변천지(辨天地)》의 "개추민이발예(概秋旻而發譽)" 한 구절은 "추민"이 중토 고유 어휘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삼수문고본이 선본임을 입증한다.

(2) 문체 범식의 직접적 원천

돈항본 잔권은 나라시대 대책문이 《토원책부》의 구식과 구조를 모방했음을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유사 구절의 화용이다. 진충마려 문의 "적람현풍, 하관열벽(逖覽玄風, 遐觀列辟)" 구식은 낙빈왕(駱賓王) 대책문 "하관소론, 묘관현풍(遐觀素論, 眇觀玄風)"에서 보이며, 더욱 《토원책부·의봉선(議封禪)》의 "묘관열벽, 적람전왕(眇觀列辟, 逖覽前王)"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자 대장 구식은 일본 상대 문헌(예: 《회풍조·서(懷風藻·序)》)에 빈번히 나타나, 이미 대책문 창작의 고정 범식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둘째, 편장 모사(模寫)이다. 왕샤오핑(王曉平)의 고증에 따르면, 도리선령(刀利宣令) 대책문 결미 "동유천종, 유미양아지대; 서촉함장, 막변일부지문……황호말학천지, 기능비술(東遊天縱, 猶迷兩兒之對; 西蜀含章, 莫辨一夫之間……況乎末學淺志, 豈能備述)"은 실제로 《토원책부·변천지》 결미 "부이동유천종, 종미대일지언; 서촉함장, 경굴개천지론……말학용능, 양난비술(夫以東遊天縱, 終迷對日之言; 西蜀含章, 竟詘蓋天之論……末學庸能, 良難備述)"의 개역이다. 두 곳 모두 공자의 변일(辯日), 양웅(揚雄)이 천문(天問)에 곤혹한 전고를 사용하고, 겸사 구식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로써 이러한 밀집 모사는 《토원책부》가 일본 사자들에게 책문 창작 모판으로 간주되었던 사실을 더욱 증명한다.

(3) 의제 설정과 제도 관련

《토원책부》 권1에 수록된 5편의 책문 주제는 일본 시책의 명제 취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돈황본 《토원책부》와 《경국집》 수록 대책문 의제의 대조 관계는 표1을 참조한다.

표1 돈황본 《토원책부》 의제와 《경국집》 수록 대책문 의제 대조표

(4) 문풍 사상의 해상 전승

상술한 의제 차용 외에도, 《토원책부·서》의 문학비평관은 일본 문론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부염(浮艷) 문풍에 대한 비판이다. 두사선은 위진 이래 대책문이 "문개리외지언, 리실문중지의(文皆理外之言, 理失文中之意)"라고 지적하며, 한대 "문불체리, 리필회문(文不滯理, 理必會文)" 전통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둘째, 헤이안 문단의 구체적 반응이다. 도량향(都良香)은 책판에서 "약리실통운, 즉문무의탁(若理失通允, 則文無依托)"을 강조하고, "병지유손 어한림(駢枝有損於翰林)"을 비판하며, "언귀재약, 문불감다(言貴在約, 文不敢多)"를 창도했는데, 이는 두사선의 "전부언이체요(剪浮言而體要)"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문학사관의 연속이다. 《경국집·서》의 "수제양풍골이상……연탁경청(雖齊梁風骨已喪……沿濁更清)"의 논은 초당 사가(위징 포함)의 육조 문풍에 대한 평가를 계승하여, 《토원책부》를 매개로 한 문론 동점(東漸) 사슬을 형성했다.

종합하면, 돈황본 《토원책부》의 발견은 일본 고대 대책문 연구에 삼중 차원을 개척했다. 첫째, 문헌학적 가치이다. 전본(傳本) 오류를 교정하는데, 앞서 언급한 "우휘" "추민"의 예처럼, 초기 문본 실증의 예를 제공했다. 둘째, 문체학적 의의이다. 구식 모방과 구조 차용의 창작 메커니즘을 드러냈다. 셋째, 사상사적 관련이다. 당대 과거 문풍 개혁과 일본 헤이안 문학비평의 해상 상호작용을 연결했다.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송대 이후 이 책이 중토에서 실전되면서, 오히려 그 동전 판본이 당대 과거문화를 연구하는 "살아있는 화석"이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돈황 사본, 일본 고초, 출토 목간을 더욱 통합하여, 당대 유서가 동아시아

아 문화권에서 전파된 경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2. 위징 《시무책》의 일본 전파 및 일본 과거 시책에 미친 영향

(1) 다자이후 목간에서 보이는 《위징시무책》 고술

1973년 다자이후 유적 발굴에서 출토된 나라시대 중후기 습자(習字) 목간 중, 두 개의 핵심 잔간이 《위징시무책》 동전 연구에 실물 증거를 제공했다. 그 중 하나는 명확히 "특진정국공위징시무책일권(特進鄭國公魏徵時務策壹卷)"이라고 묵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정국공무무(鄭國公務務)" "위징(魏徵)" 글자가 남아있다(도3). 반출된 도기 유형학 단대(斷代) 및 같은 묶음의 "서생" 글자 목간에 근거하여, 학자 사토 마코토(佐藤信)는 이것이 일본 지방 하급 관리의 습자 재료로 판정하여, 이 책이 8세기 중후기에 이미 율령제하 과거 준비의 중요한 참고가 되었음을 입증했다.

[도3 다자이후 출토 목간]

목간 칭호 "특진정국공위징"은 전세 문헌의 기재와 고도로 일치한다. 《신당서(新唐書)·위징전(魏徵傳)》은 그가 정국공에 봉해지고 특진을 배수받아 오대사(五代史) 서론 편수를 주재한 사적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인덕 원년(664) 성서된 《광홍명집(廣弘明集)》 권6에 "당특진정국공위징책(唐特進鄭公魏徵策)"이 언급되어 있고, 《신당서·예문지(藝文志)》는 더욱 명확히 "위징시무책오권(魏徵時務策五卷)"을 저록하고 있다. 이상 문헌 기록은 저자 신분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의 당대 권위적 지위를 나타낸다. 그 문본 성질은 위징이 찬찬한 시무책론 전집에 속하며, 후세 위작이 아니다.

이 책은 중토에서 일찍 산일되었으나, 관사 목록 기재에 따라 그 판본 유변 상황을 고찰할 수 있다. 《신당서·예문지》 "정부집록(丁部集錄)"에 "위징《시무책》오권"이 기재되어 있고, 《송사(宋史)·예문지》 "별집류(別集類)"에 "위문정공(魏文正公)《시무책》오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잡가류(雜家類)"에 "위징《시물책(時物策)》일권"이 기재되어 있고(물(物)은 무(務)의 오기), 《통지(通志)·예문략(藝文略)》 "별집사(別集四)"에 "위정공《시무책》일권"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 기재는 당송 시기 적어도 "오권본"과 "일권본"

두 종류 판본이 존재했음을 설명한다. 헤이안 말기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 《후이조사통기(後二條師通記)》는 그가 관치(寛治) 5년(1091)에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수서(手書) 《시무책》 삼권(주: "불견주(不見注)")을 열람했고, 이듬해 다시 이권을 얻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주불견"의 표기는 당시 일본에 "대주본(帶注本)"과 "무주본(無注本)"이 병존했음을 드러내며, 도장 수초본은 후자에 속한다. 히가시노 하루유키(東野治之)는 이에 근거하여, 일권본은 무주본이고, 오권본은 유주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자이후 목간의 "일권"은 《송사》 《통지》의 일권본 기재와 계합하여, 나라시대에 전입된 것이 일권 무주 간본임을 나타낸다. 가마쿠라시대 승려 저작 이 《시무책》 주문을 징인(徵引)한 사실은 오권 유주본이 후에도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증명한다.

동전 시간에 대해서는, 목간이 속한 나라 중후기(약 8세기 중엽)와 일본이 이 책을 가장 먼저 징인한 전적 《고기》(《대보율령》 주석서, 약 천평(天平) 10년/738년 성립)가 공동으로 그 전입 하한을 738년으로 확정한다. 이 결론은 목간 문본의 출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위징시무책》이 "등용문(登龍門)" 시험의 핵심 교재로서, 율령제 형성 초기에 이미 일본 과거체계에 흡수되었음을 드러낸다. 그 유전 궤적은 나라 습자 목간에서 헤이안 귀족의 사장(私藏)으로, 다시 가마쿠라 선림(禪林)의 주소(注疏)로 이어지는데, 이 유포 궤적은 당대 책론 문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진 지속적 생명력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2) 《위징시무책》이 일본 고대 대책문에 미친 영향

《위징시무책》이 일본에 동전된 후, 율령시대 과거제도와 문학창작의 형성 과정에 깊이 참여했다. 그 영향은 먼저 제도 건구 층면에 체현된다. 《영집해(令集解)·고과령(考課令)》은 명확히 이 책을 인용하여 진사과 "시무책"을 "치국지요무(治國之要務)"로 정의하는데, 이 조치는 그 관방 해석 권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당대 책론 범식을 선택적으로 흡수했음을 부각시킨다——시책 조수를 당제 오조(五條)에서 이조(二條)로 축소했지만, 위징 문본을 과거 표준으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감량제질(減量提質)" 개조는 일본 율령제가 당문화를 소화 흡수하는 전략을 반영하는데, 즉 경전

문본의 정요성으로 본토 사자 한학 소양의 국한을 보완한 것이다.

둘째, 문본 창작 측면이다. 《경국집》에 수록된 26편의 대책문은 《위징시무책》에 대한 체계적 모방을 나타낸다. 도수궁계(道守宮繼) 《조화오행(調和五行)》의 "홍지이덕, 구지이도(弘之以德, 救之以道)"는 위징의 "도지이덕, 제지이례(導之以德, 齊之以禮)" 사자 구식 구조를 직접 계승했고, 그 "외외지화, 탕탕지풍(巍巍之化, 蕩蕩之風)"은 일문(佚文) "탕탕지화, 외외지풍(蕩蕩之化, 魏魏之風)"의 어순 조환에 가깝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작자의 두 편 대책문(《조화오행》《치평민부(治平民富)》)이 위징의 같은 조 일문을 화용했다는 점인데, 이는 일본 사자가 이 책에 정숙한 정도가 이미 "인경거전여기출(引經據典如己出)"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유사한 모사는 나라·헤이안시대 대책문 작품에 광범위하게 보인다. 예컨대 선사미마려(船沙彌麻呂) 《교사지례(郊祀之禮)》의 "명지노책, 저재주편(明之魯策, 著在周篇)"은 "저재우서, 현어노책(著在虞書, 顯於魯冊)"의 대장 정식을 모방했고, 장기미마려(藏伎美麻呂) 《상벌지도(賞罰之道)》의 "청정지풍사재, 옹희지화가기(淸靖之風斯在, 邕熙之化可期)"는 "탕탕지화가기, 외외지풍사재(蕩蕩之化可期, 魏魏之風斯在)" 구형을 화용했다. 이러한 밀집된 문본 복제는 일본 관인이 변려(駢麗) 문체 창작에서 가진 능력 불안을 폭로하는데——위징 책론을 "범문모본(範文模本)"으로 삼은 것이 실은 과거 문체의 흑독한 요구에 대응하는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었다.

셋째, 더 깊은 층차의 영향은 문풍 측면의 혁신에 있다. 위징은 《수서(隋書)·문학전서(文學傳序)》에서 육조의 "의천이번, 문닉이채(意淺而繁, 文匿而彩)" 부염 문풍을 비판하고, 강좌(江左) "청기(淸綺)"와 하삭(河朔) "기질(氣質)"을 융합하여 "문질빈빈(文質彬彬)"에 도달할 것을 주장했으며, 그는 《군서치요서(群書治要序)》에서 더욱 "경채부염지사(競採浮艷之詞)"의 폐단을 통렬히 비판했다. 이 실용주의 문학관은 《시무책》을 통해 일본 나라 문단에 심어졌다. 《경국집·서》: "수제양지시, 풍골이상, 주수지일, 규구불존, 이연탁갱청, 습고환신, 필소의지불이, 내암합호낭편(雖齊梁之時, 風骨已喪, 周隋之日, 規矩不存, 而沿濁更淸, 襲故還新, 必所擬之不異, 乃暗合乎曩篇)." 왕샤오팡은 이 관점이 "초당 사학가의 육조 문풍에 대한 평가를 계승하여, 새로운 문풍을 수립하여 일본 한시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백제왜마려(百濟倭麻呂) 《감식재준(鑑識才俊)》은 "세성가담, 점풍우이양관; 수해우보, 진입제봉지운

(歲星可談, 占風雨而仰款; 豎亥雨步, 盡入提封之垠)" 등 사자 단구를 주로 하고 단지한 곳 육자 격구대(隔句對)의 간련한 행문으로, 육조 변려의 구태를 철저히 벗어나, 위징의 "철피청음, 간자루구(掇彼清音, 簡茲累句)" 주장을 생동적으로 실천했다. 이러한 문풍 전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일본 대책문이 보편적으로 전고 퇴적을 감소하고, 성률 구속을 약화할 때, 바로 《시무책》 일문의 질박명창(質朴明暢)한 풍격과 문화 간 공진을 형성했다.

요컨대, 《위징시무책》의 일본 전파사는 제도 규범, 문본 실천, 미학 사조의 삼중 변주곡이다. 그것은 율령 과거의 "표준답안"이자, 문체 창작의 은형 모판이며, 더욱이 일본 한문학을 기려(綺麗)에서 질실(質實)로 전환시킨 핵심 지렛대이다. 그 가치는 보통 한적 동전을 훨씬 초월하며, 실로 당대 정치문화와 문학정신이 동아시아에 깊은 층차로 뿌리내린 것이다.

3. 협동과 승화: 당대 과거 유서의 일본 대책문에서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1) 상호보완적 기능의 구조화 제시

《토원책부》와 《위징시무책》은 일본 과거문화에서 고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계층화된 상호보완 체계를 형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식 프레임워크와 권위 범본의 분업. 《토원책부》는 "변천지" "의봉선" 등 의제로 명제 템플릿을 제공하여, 일본 책문의 거시 구조를 형성했고(예: 《경국집》의 "치어신라"가 "정동이"에 대응), 《위징시무책》은 "도지이덕" "탕탕지화" 등 구식으로 작성 범본이 되어, 조사(措辭) 자원을 직접 공급했다(예: 도수궁계 대문의 사자구 모방).

사상 관념의 공진 강화. 둘 다 "문리검비" 실용 문풍을 공창했다. 《토원책부·서》는 위징의 "문개리외지언"을 비판했고, 《위징시무책》은 "간자루구"의 서사 원칙을 실천하여, 공동으로 일본 대책문이 육조 부염의 구태를 벗어나도록 추진했다. 헤이안 초기 도량항의 "언귀재약" 책판 표준과 《경국집·서》의 "연탁갱청" 선언은 실로 두 유서 문론에 대한 이중 반응이다.

전형 사례. 도리선령 대책문은 《토원책부》의 용전(用典) 구조를 모방했고(공자 변일+양웅 천문), 동시에 《위징시무책》 단구대 형식을 계승하여, 두 유서가 단편 문본에

서 융합됨을 체현했다.

(2) 과거 실천에서의 협동 운작

일본 율령제는 제도 설계를 통해 두 유서를 과거체계에 납입했다.

먼저 교육 측면이다. 《일본국전재서목록》이 《토원책부》를 "총집"류에 귀입하여 《문선》과 병렬시킨 것은 그 관학 교재 지위를 확립했다. 다자이후 "서생" 목간은 《위징시무책》이 지방 관리 습자 범본임을 증실하여, 그것이 기층 교육에 침투했음을 반영한다.

둘째 시험 측면이다. 《양로령》은 진사과에서 시무책 이조를 시험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정간성(당제 오조 대비)은 사자가 범본을 정연(精研)할 것을 요구했다——《토원책부》는 파제(破題) 사로를 제공했고(예: "천지시종"이 우주관 논술에 대응), 《위징시무책》은 "의리조당(義理慥當)"의 구체 표달을 부여했다(예: "홍지이덕"의 치국 논리).

(3) 동아시아 한문화권의 전파학적 의의

이상의 고찰을 통해, 두 유서의 동전 궤적은 당대 지식체계가 동아시아에서 분층 접수된 모식을 심각히 드러냈는데, 이 모식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 두 유서의 동전 궤적이 드러내는 당대 지식체계의 동아시아 분층 접수 모식이 모식은 일본 나라·헤이안 전기의 당문화 흡수가 결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경전에 대한 "선별"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시책 조수를 감소하되 위징 문본을 승격시키는 것이다. 혹은 기능 재조합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유서를 "의제고(議題庫)"로 해체하여, 창조적 전화를 실현한다. 이 모식은 후에 형성된 소위 "화혼한재(和魂漢才)"에도 초기 문화 흡수 범식을 제공했다.

결론

본문은 돈황 사본, 다자이후 목간, 일본 한적의 삼중 증거 사슬을 통합함으로써, 당대 과거 유서가 일본 고대 대책문에 미친 심층 형성을 체계적으로 드러냈다.

첫째, 학술적 가치의 재확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차원에 체현된다. 하나

는 문헌학 차원이다. 돈황본 《토원책부》는 일본 전세 대책문을 교감하는 "원전 암호"가 되었다. 예컨대 "우회" "추민"의 오류를 교정했다. 다자이후 목간은 《위징시무책》 동전의 실물 증거를 보완하여, 그 전입 하한을 738년으로 확정했다. 둘째는 문체학 차원이다. 두 종류 유서는 각각 "골격"(의제 프레임워크)과 "혈육"(구식 사조)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일본 고대 대책문의 문체 유전자를 구축했다. 셋째는 사상사 차원이다. 초당 "문질빈빈"의 실용 문풍이 두 유서 매개의 심입을 거쳐, 헤이안시대 초기 문문의 경전 전형을 축화했다.

둘째, 문화 전파 범식의 제련이다. 두 유서의 협동 작용은 "모판-범본"의 이원 전파 메커니즘을 체현하는데, 하나는 《토원책부》가 지식 모판으로서, 확장 가능한 의제 구조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위징시무책》이 작성 범본으로서, 복제 가능한 표달 정식을 수출했다는 것이다. 양자는 공동으로 일본 율령제하 과거문화의 "운영체제"를 구성했으며, 그 성공적 운작은 한적 동전의 핵심 가치가 문본의 이식에 있지 않고, 본토화 재구축 가능한 방법론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동아시아 과거 문화권 연구는 당대 과거 유서가 일본에서 수용된 역사가 동아시아 한문화권 연구에 새로운 고찰 시각을 제공함을 나타낸다. 첫째, 서적의 길의 심층 논리이다. 한적은 지식 매체일 뿐만 아니라, 제도 이념의 "압축팩"이며, 그 전파 효과는 수용방의 수용 능력에 달려있다——일본은 "감량제질"(책문 조수를 정간하되 범본 지위를 강화)을 통해 고효 접수를 실현했다. 둘째, 미래 더 나아간 연구 경로로는, 하나는 횡향으로 조선반도, 베트남의 동류서에 대한 수용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고, 둘째는 종향으로 일본 중세 선림의 당대 유서에 대한 주해 전형을 추적하며, "목간—사본—간본" 증거 사슬의 학제 간 통합을 심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토원책부》와 《위징시무책》은 쌍궤(雙軌)처럼 당대 과거문화가 일본에 착륙하도록 추진했는데, 전자는 의제의 궤를 부설했고, 후자는 문사의 바퀴를 구동했으며, 최종적으로 나라·헤이안시대의 옥토에서 당풍 아운과 화식(和式) 정백을 겸비한 대책문학의 꽃을 잉태했다. 그 유산은 고지(故紙)에만 존재하지 않고, 더욱 동아시아 문명 대화의 유전자 서열 속에 새겨져 있다.

(저자 소속: 하남사범대학 외국어학원)